

#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흡연, 음주와 심리사회적 요인과의 관계연구

박남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목 차〉

I. 서론	V.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Abstract
IV. 논의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정서적 성숙과 인격완성을 위한 심리적 변화와 격동을 치르는 시기로서 청소년기 발달은 유아기나 아동기와는 달리 예정된 발달 계획에 따라 성장하기보다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정혜경, 2001).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 및 가족 그리고 동료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적응이 요구되는 극적인 도전을 받기도 하며(Lerner와 Galambos, 1998), 그 중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 요소들과 맞물려 여러 가지 문제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장휘숙, 2004).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와 같은 문제행동은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되는데 최근 금연운동협의회(2004)에서 보고한 청소년 흡연율은 남학생 15.9%, 여학생 7.5%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청소년 보호위원회(2004)에서 보고한 청소년 음주율은 1999년 음주경험은 60.2%였으나 계속 증가하여 2004년에는 74.4%를 기록하고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음주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음주와 흡연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점은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가 저연령화 되어간다는 사실과 여학생의 흡연과 음주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최은진, 1999; 금연운동협의회, 2004; 청소년 보호위원회, 2004).

교신저자 : 박남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633-165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우: 614-735)

전화번호: 051-890-6832, E-mail: parknh@inje.ac.kr

청소년기의 흡연과 음주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해를 초래할 수 있고, 이 중 여고생의 음주와 흡연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상은 미래 인구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흡연과 음주가 습관적으로 이어진다면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의료비 및 사회적 해악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 관련된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정서적인 고통을 달래는 하나의 방편으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오가실과 한정석, 1990; 김영아, 2000; 정혜경, 2001),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박영희, 2001). 또한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발달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우울을 증가시키거나(Brage와 Meredith, 1994), 우울한 기분 때문에 음주사용이 지속되거나 강화된다(진기남과 한동우, 1998). 즉 사춘기에 따른 변화와 학교생활의 적응에 따른 긴장감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이 유발되고, 이러한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흡연과 음주와 같은 문제행동에 쉽게 접근하게 된다(진희숙, 1994; Albright, 1999).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에 의한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하는 개념으로써 대상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 자기 파괴적인 건강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Denton과 Walters, 1999).

최근 청소년의 경우 성별에 따른 흡연 및 음주를 하는 이유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1),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관련하여 음주와 흡연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특히 성별에 따

른 음주 및 흡연관련 사회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기로 이행 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갈등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대처기술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흡연 및 음주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보건교육 또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에 따른 음주, 흡연,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들의 흡연, 음주,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 정도를 파악한다.
- 2) 성별에 따른 음주 및 흡연,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지지, 자기존중감 정도를 파악한다.
- 3)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지지, 자기존중감에 따른 음주유무와 흡연유무의 차이를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이 연구의 모집단을 편의상 2002년 3월 B시에 거주하는 남녀 고등학생으로 학교종류와 성별에 따라 각 학생 수에 비례하여 층화집락추출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추출을 위한 층은 실업계와 인문계로 나누고, 성별에 따라 나누어 총 16개 학교를 표본으로 추출하였고 집락(Cluster)은 각 학교로 하였고 각 학교의 2개 반을 무작위로 표출하였다. 무작위로 선정된 1004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중 설문지의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79명을 제외하고 총 925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반응률은 92.1%였다. 자료 수집은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으로 하였다.

## 2. 연구도구

### 1) 지각된 스트레스

인격적 요소, 대처과정, 객관화된 스트레스 사건 등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Cohn 등, 1983)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Cohn 등(1983)이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ohn 등(1983)이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도구를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시 Cronbach's alpha는 .75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1였다.

### 2) 우울

우울이란 무희망감, 불안정감, 슬픈 감정이나 우울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개인의 일상 생활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되거나 불쾌한 기

분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된다(APA, 1994). 본 연구에서는 Radloff(1977)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우울한 감정(7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화 증상(7문항), 대인관계(2문항)등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자들은 20개 항목의 질문에 대해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1주일 동안 어떻게 느꼈는지 '거의 드물게' 0점, '때때로' 1점, '상당히' 2점, '대부분' 3점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문항은 역으로 점수화하였다. 가능한 총점은 0-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16점의 이상을 받은 대상자들은 우울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adloff, 1977). Radloff(197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9였다.

### 3) 사회적지지

개인이 필요할 때 도움이나 감정이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믿음과 유용한 지지에 대한 개인의 만족으로(Sarason과 Sarason, 1985), 본 연구에서는 Hong(1996)이 Sarason 등(1987)의 SSQ 6(Social Support Questionnaire 6)를 Hong(1996)이 번역한 한글판 도구를 이용하여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와 지지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된 값을 의미한다.

Sarason 등(1987)에 의해 개발된 6개 문항의 SSQ 6(Social Support Questionnaire 6)을 Hong(1996)이 번역한 한글판 도구를 사용하여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와 지지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망은 주어진 상황에서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각 문항마다 9명까지 열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각 문항마다 9명까지 열거할 수 있으며 지지에 대

한 만족은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지지의 질에 대해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6점)'까지의 6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분석 시에는 평균점수를 사용하여 지지망 크기의 가능한 범위는 0-9명이며 숫자가 클수록 지지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만족도의 가능한 종점은 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arason 등(1987)은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90, 지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92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에 대한 Cronbach's alpha .92, 지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92였다.

#### 4) 자기존중감

자아 만족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이 느낌(Rosenberg, 1965)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척도를 전병재(1974)가 한국판으로 표준화시킨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척도를 전병재(1974)가 한국판으로 표준화시킨 것으로 긍정형과 부정형이 혼합되어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시 Cronbach's  $\alpha$ 는 .85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1였다.

#### 5) 음주

최은영 등(1998)에서 사용한 회상법으로 설문 조사로 음주 양태를 측정하였으며 회상기간은 지난 한 달로 규정하였다. 지난 한달 동안 음주

여부를 묻고 이에 따라 음주자와 비음주자를 구분하였다.

#### 6) 흡연

Pallonen 등(1998)이 개발한 최근의 흡연상태를 묻는 4개의 범주로 된 질문을 이용하여 최근의 흡연상태를 자가 결정한 것에 근거하여 비흡연자는 '흡연을 한 적이 없는 사람', 흡연경험자는 '이전에 몇 번 흡연을 한 적이 있는 사람', 금연자는 '규칙적으로 흡연을 했지만 금연을 하고 있는 사람' 현재 흡연자는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비흡연자, 흡연경험자, 금연자로 답한 경우는 비흡연자로 구분하였고, 현재 흡연자는 흡연자로 구분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 코딩한 후 SPSS/WIN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 음주 및 흡연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3)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 음주 및 흡연 유무에 대한 차이는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 4)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른 음주 유무와 흡연유무의 차이는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925명이었고, 이 중 남학생이 50.3%, 여학생이 49.7%였다. 남학생은 인문계가 56.6%, 실업계가 43.4%였고, 여학생은 인문계가 57.2%, 실업계가 42.8%였다.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남학생은 보통이다 35.7%, 만족한다가 25.8%였고, 여학생은 보통이다가 43.9%, 만족한다가 22.8%였다. 학업성적에서는 남학생은 중위권이 51.4%, 여학생은 중위권이 58.5%였다. 지각된 경제 상태는 남자는 보통이다가 50.1%, 여학생은 보통이다가 59.8%로 나타났다(표 1).

#### 2.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흡연 및 음주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남학생 19.39점, 여학생 20.66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p < .0001$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울정도는 남학생 17.51점, 여학생 20.05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정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p < .0001$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지지정도는 지지망에서는 남학생 4.72명, 여학생 4.35명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지지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p = 0.025$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만족도에서는 남학생 5.66점, 여학생 5.7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아존중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흡연유무에 있어서는 흡연을 하는 경우가 남학생 23.4%, 여학생 15.9%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p = .004$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주유무에 있어서는 남학생 55.9%, 여학생 54.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남학생 (N=465) N(%)	여학생 (N=460) N(%)	전체 (N=925) N(%)
학교종류	인문계	263(56.6)	263(57.2)	526(56.9)
	실업계	202(43.4)	197(42.8)	399(43.1)
학교생활만족도	만족	120(25.8)	105(22.8)	225(24.3)
	보통	166(35.7)	202(43.9)	368(39.8)
	불만족	179(38.5)	163(33.3)	332(35.9)
학교성적	상위권	97(20.9)	71(15.4)	168(18.2)
	중위권	239(51.4)	269(58.5)	508(54.9)
	하위권	129(27.7)	120(26.1)	249(26.9)
지각된 경제상태	잘산다	64(13.8)	32(7.0)	96(10.4)
	보통이다	233(50.1)	275(59.8)	508(54.9)
	못산다	168(36.1)	153(33.3)	321(34.7)

### 3.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에 따른 흡연유무의 차이

연구대상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정도는 흡연군이 21.72점, 비흡연군 18.67로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p < .0001$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울정도에서는 흡연군 20.45점, 비흡연군 16.61점으로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p < .0001$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에서는 흡연군과 비흡연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3).

표 2.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흡연 및 음주의 차이

변수	남학생(N=465)		여학생(N=460)		x <sup>2</sup> or t	p
	N(%) or Mean(SD)		N(%) or Mean(SD)			
스트레스	19.39(5.35)		20.66(4.67)		-3.857	<.0001
우울	17.51(9.67)		20.05(9.84)		-3.960	<.0001
우울군	215(46.2)		275(59.8)		17.033	<.0001
비우울군	250(53.8)		185(40.2)			
사회적 지지						
지지망	4.72(2.71)		4.35(2.21)		2.250	.025
만족도	5.66(1.29)		5.70(1.13)		-.542	.588
자아존중감	30.26(5.29)		30.15(4.77)		.341	.733
흡연						
한다	109(23.4)		73(15.9)			
안한다	359(76.6)		387(84.1)		8.388	.004
음주						
한다	230(55.9)		250(54.3)		.229	.644
안한다	205(44.1)		210(45.7)			

표 3. 남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에 따른 흡연유무의 차이

변수	남학생(N=465)		t	p
	흡연군(N=109)	비흡연군(N=359)		
	Mean(SD)	Mean(SD)		
스트레스	21.72( 5.28)	18.67(5.17)	5.366	<.0001
우울	20.45(11.02)	16.61(9.05)	3.672	<.0001
사회적 지지				
지지망	4.88(2.54)	4.67(2.77)	.701	.484
만족도	5.62(1.40)	5.67(1.26)	-.361	.719
자아존중감	29.90(5.07)	30.37(5.36)	-.815	.416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지지에서 지지망이 흡연군이 4.90명, 비흡연군이 4.25명으로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지지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p=.019$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서는 흡연군 28.93점, 비흡연군 30.38점으로 흡연군에 비해 비흡연군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p=.017$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우울 및 사회적 지지에서 만족도에 있어서는 흡연군과 비흡연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4.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에 따른 음주유무의 차이**

연구대상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정도는 음주군 20.24점, 비흡연군 18.31점으로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 $p<.0001$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울정도에서는 음주군 18.70점, 비음주군 16.00점으로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p=.003$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에서는 지지망과 만족도에 있어서 음주군과 비음주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5).

여학생의 경우 스트레스 정도는 음주군 21.42점, 비음주군 19.75점으로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p<.001$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울정도에서는 음주군 21.55점, 비음주군 18.27점으로 음주군의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p<.0001$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에서는 지지망은 음주군 4.58명, 비음주군 4.07명으로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지지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p=.014$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서는 음주군 29.72점, 비음주군 30.66점으로 음주군에 비해 비음주군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p=.035$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음주군과 비음주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4. 여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에 따른 흡연유무의 차이

변수	여학생(N=460)		t	p
	흡연군(N=73) Mean(SD)	비흡연군(N=387) Mean(SD)		
스트레스	20.77(4.47)	20.64(4.71)	.729	.461
우울	21.90(10.66)	19.70(9.65)	1.757	.080
사회적 지지				
지지망	4.90(1.98)	4.25(2.24)	2.347	.019
만족도	5.89(.93)	5.57(1.16)	1.555	.121
자아존중감	28.93(4.79)	30.38(4.74)	-2.390	.017

표 5. 남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에 따른 음주유무의 차이

변수	남학생(N=465)		t	p
	음주군(N=260) Mean(SD)	비음주군(N=205) Mean(SD)		
스트레스	20.24(5.05)	18.31(5.54)	3.930	<.0001
우울	18.70(9.76)	16.00(9.37)	3.019	.003
사회적 지지				
지지망	4.91(2.74)	4.47(2.68)	1.707	.088
만족도	5.63(1.30)	5.70(1.28)	-.628	.531
자아존중감	30.27(4.99)	30.26(5.66)	.016	.987

#### IV. 논의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흡연 및 음주 정도와 그 차이를 알아보고 각 성별 간에 흡연과 음주 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들의 스트레스는 남학생이 19.39점, 여학생이 20.66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이재연, 1999; 김영아, 2000)와 일치하였다. 대상자들의 우울 정도는 남학생이 17.51점, 여학생 20.05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군은 남학생이 46.2%, 여학생 59.8%의 분포를 보였다. 성별에 대한 평균 우울점수는 우울의 가능성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절단값을 16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보였다. 우리나라 청소년 우울증세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연구소(1999)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더 많은 우울증세를 보였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표 6. 여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에 따른 흡연유무의 차이

변수	여학생(N=460)		t	p
	음주군(N=250) Mean(SD)	비음주군(N=210) Mean(SD)		
스트레스	21.43(4.53)	19.75(4.68)	3.906	<.0001
우울	21.55(9.91)	18.27(9.47)	3.613	<.0001
사회적 지지				
지지망	4.58(2.18)	4.07(2.23)	2.469	.014
만족도	5.63(1.21)	5.79(1.03)	-1.480	.140
자아존중감	29.72(4.81)	30.66(4.69)	-2.116	.035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정도가 우리나라 성인의 우울평균 10.5%(Cho 등, 199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청소년의 우울문제는 잠재적으로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과제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하도록 격려와 지지를 받으면서 자라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남자 청소년들이 인생을 통해 겪게 되는 변화와 과제들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를 하게 되고 나아가 이에 따르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도 불안과 우울을 겪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양돈규, 1997; Nolen-Hoeksema와 Girgus, 1994)을 볼 수 있듯이,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스트레스와 우울에 있어서 모두 높은 점수 분포를 보인 점을 볼 때 여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심각성을 알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재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에서 지지망에서는 남학생 4.72명, 여학생 4.34명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사회적 지지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 대상연구(김옥수와 김계화, 2001)에서 2.63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의 사회적 지지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경우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사회적 지지망에서 더 포괄적인 관계형성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경우 주위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청소년기에 있을 수 있는 또래 집단에 대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위협행위 중 흡연 및 음주행위의 수정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시 청소년 스스로가 심리적, 행위적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을 포함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고, 또한 같은 또래 집단의 참여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공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존중감에 있어서는 남학생 30.26점, 여학생 30.15점으로 장희정과 신윤희(2002)의 청소년(N=817)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27.27(SD=4.64)점으로 나타난 결과에 비해서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남. 여학생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King, Hyde, Showers, & Buswell(1999)은 자아존중감과 성차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여학생보다 높으나 그 차이는 적다는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의 성별 차이에 대하여 많은 문헌에서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낮은 지위에 있으므로 여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남학생들보다 낮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직까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Jaffe, 1998). 또한 자아존중감이 한 인간의 성장환경이나 성격들의 총합으로서 발현된다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거 잘못된 남녀차별적인 것이 차츰 양성평등의 문화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차츰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적어지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흡연율은 남학생은 23.4%, 여학생은 15.9%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흡연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운동협의회(2002)의 청소년 흡연을 남자고등학생 23.6%, 여자고등학생 7.3%와 비슷한 결과였다.

음주율은 남학생이 55.9%, 여학생 54.3%로 흡연율에 비해 아주 높은 음주율을 보이고 있지만 성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Korea Drinking Culture and Alcohol Research(2001)에서 청소년 음주율 75.7%에 비해 다소 낮았다.

본 연구 대상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흡연유무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흡연군에 비해 비흡연군이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 지지에서는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사회적 지지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경우 흡연하는 학생들은 흡연하지 않은 여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흡연청소년이 자아존중감이 떨어진다는 박영희의 연구(2001)와 일치함을 볼 수 있고, 또한 사회적 지지망에서는 흡연하는 여학생에게는 흡연하지 않은 여학생에 비해 사회적 지지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경우 또래집단과 어울리기:위한 흡연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으나(금연운동협의회, 2002) 본 연구결과에서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망이 흡연행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사회적 지지망이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학생의 경우 흡연행위수정을 위해서는 여학생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또래 집단 및 지지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전략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음주와 심리사회적 관련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의 경우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스트레스, 우울정도가 비음주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스트레스, 우울정도는 더 높은 것으로, 사회적 지지자가 더 많고, 자아존중감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가실과 한정석(1990)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경험한 청소년이 많은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고, 진기남과 한동우(1998)도 우울한 기분 때문에 음주사용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음주행위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고한 바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우울증세의 정도에 따른 음주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김주형 등, 2002)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결과는 최근에 와서는 사회가 개방화되고 핵가족 및 체계의 변화로 인해 그동안 전통적으로 금기시해오던 여성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의 흡연 및 음주에 의한 병폐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학생의 흡연율과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절주와 금연교육도 중요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흡연률 및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성별 따른 차별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남학생의 경우 흡연의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정도가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 흡연을 많이 함을 볼 수 있었고, 음주의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음주를 많이 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남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증재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앞으로 청소년 음주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의 음주

행태 및 이로 인한 개인적 및 사회, 경제적 손실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enderwitz, 1995)에서도 보듯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기술이나 우울을 해결할 수 있는 건전한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학교에의 관심과 배려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학생의 경우 흡연의 경우 사회적 지지자가 많지만, 자기존중감은 낮은 경우 흡연을 더 많이 함을 볼 수 있었고, 음주의 경우 스트레스, 우울이 높고, 자아존중감은 낮고, 사회적 지지자가 많을 경우 음주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학생의 경우 흡연, 음주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볼 때 여학생의 흡연 및 음주율이 최근에 증가함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와 취업위주의 교육과정 때문에 건강한 인생설계에 대한 자주적인 의사결정, 긍정적 대처방식, 건강한 생활양식 개발 등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김춘미 등, 2000). 그러므로 여학생의 흡연율과 음주율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 흡연 및 음주의 폐해에 대한 지식교육과 더불어 여학생들의 정체감 함양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전략이 반드시 포함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행위가 하나의 일탈된 행위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들의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 차별화되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음주, 흡연,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B시의 16개 고등학교 학생 92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10.0/Wi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트레스와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사회적 지지망이 더 많았고,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2) 성별에 따른 흡연유무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의 경우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스트레스, 우울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사회적 지지망이 더 많았고, 자기존중감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성별 따른 음주유무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의 경우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스트레스,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스트레스, 우울정도가 높았고, 지지망이 더 많았고, 자기존중감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우울이 흡연 및 음주와 관련이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사회적 지지망과 자기존중감이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와 우울, 사회적 지지망, 자기존중감이 음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성별에 따라 흡연과 음주에 관련된 심리, 사회적 요인들의 관계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각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증재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흡연행위와 음주행위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관련변인에 대한 심도 있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접수일자: 2005.8.31, 게재확정일자: 2005.12.10>

### 참고문헌

금연운동협의회. 2002년 중·고교생 흡연실태조사. 서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2.

김영아.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건강행위와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2000;7(2):203-212.

김옥수, 김계화. 여대생과 직장여성들의 사회적 지지, 우울, 음주, 흡연에 대한 비교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001;13(3):363-372.

김주형 외 12명. 일 도시 여고생의 음주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2002; 11(1):98-109.

김춘미, 최정명, 현혜진.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0;13(1):109-115.

박영희. 흡연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불안 및 우울 [석사학위논문]. 대전: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1.

양돈규.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7.

오가실, 한정석. 스트레스 생활사건, 건강문제, 대응, 사회적 지지와 관계-청소년을 대상으로 -. *대한간호학회지* 1990;20(3):414-429.

윤혜정.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지

지 지각[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3.

이재연.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1999.

장희숙. 청년심리학. 박영사, 2004.

장희정, 신윤희. 청소년이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자가역량간의 관계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002;32(2):186-195.

전병재. 자아개념 측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974;11.

정혜경. 고등학교 청소년의 흡연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대한간호학회지* 2001;31(4):610-618.

조맹제, 김계희. 주요우울증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1993;32(3):381-397.

진기남, 한동우. 근로청소년의 음주행태와 삶의 질. 집문당, 1998.

진희숙. 청소년 흡연, 음주 및 약물남용의 실태와 요인 [석사학위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4.

최은영 외 8명. 한국인의 음주양태에 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998;19(10):858-869.

최은진.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의 실제. 제 24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보고서. 대한보건협회, 1999년 10월.

한국청소년상담연구소. 청소년의 우울.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연구소, 1999.

청소년보호위원회(2004). www.youth.or.kr.

Albright AV. Vulnerability to depression.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1999;34(2):393-407.

Brage D, Meredith W. A casual model of adolescent depression. *The Journals of psychology* 1994;128:455-468.

Cho MJ, Mam JJ, Suh GH. Prevalence of symptoms of depression in a nationwide sample of Korean adults. *Psychiatry Research* 1998;81:341-352.

- Cohn S, Kamarck T, Mermelstein R.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83;24: 385-396.
- Denton M, Walters V. Gender differences in structural and behavioral determinants of health : An analysis of the social production of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1999;48(9):1221-1235.
- Hong OK. Antecedents and health-related consequences of loneliness in older Korean immigra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 1996,
- Jaffe ML. *Adolescence*. USA: John Wiley & Sons, 1998.
- King KC, Hyde JS, Showers CJ, Buswell BN. Gender differences in self-esteem: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999;125(4):470-500.
- Korea Drinking Culture and Alcohol Research. *National survey on Alcohol Use among Pre-adolescents and adolescents*. Seoul: KODCAR 2001.
- Lerner RM, Galambos NL. Adolescent developm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research, programs, and policies. *Annu Rew Psychol* 1998;49:413-446.
- Nolen-Hoeksema S. Ruminative coping with depressed mood following 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4; 67(1):512-561.
- Pallonen UE, Prochaska JO, Velicer WF, Prokhorov AV, Smith NF. Stage of acquisition and cessation for adolescent smoking: an empirical integration. *Addictive Behavior* 1998;23(3):303-324.
- Radloff LS.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977;1:385-401.
-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HJ: Penguin Books, 1965.
- Sarason IG, Sarason BR.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pplication*. Dorrecht,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1985.
- Sarason IG, Sarason BR, Shearin EN, Pierce GR. A brief measure of social support: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 *Journal of Social & Personal Relationships* 1987;4:497-510.
- Senderwitz J. Adolescent health, reassessing the passage to adulthood. World Bank Discussion Papers, No 272. World Bank, Washington D.C., 1995.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omen and smoking: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Internet] 2001[cited December 6, 2001]. Available from: [http://www.cdc.gov/tobacco/sgr/sgr\\_forwomen/Executive\\_Summary.htm](http://www.cdc.gov/tobacco/sgr/sgr_forwomen/Executive_Summary.htm). 362-368, 2001.

<ABSTRACT>

## Gender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social Factors and Smoking, Drinking in Adolescents

Park, Nam Hee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ender difference of relationship between psycho-social factors and smoking, drinking in adolescents.

**Method:** The stratified cluster sample consisted of 925 adolesc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to March, 2002.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Perceived Stress, DES-D,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female had more perceived stress, depressed than male. Male had more social support network, smoke than female. Male who smoked cigarettes were more perceived stress, depressed than those who did not smoke. Female who smoked cigarettes were more social support network, and had less self-esteem than those who did not smoke. Also male who drank alcohol were more perceived stress, depressed than those who did not drink. Female who drank alcohol were perceived stress, depressed, social support network, and had less self-esteem than those who did not drink.

**Conclusion:** It is hoped that much more research on gender difference in adolescents who smoked cigarettes, drank alcohol will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e application of various interventions to deal with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 among female and male adolescents.

**Key words :** Perceived Stress, Self-esteem, Smoking, Drinking, Adolescents